

연 세 대 학 교

사회과학대학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

우)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 전화 (02) 2123- 3643,5,3652 /담당자: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문서번호 : 6-03

작성일자 : 2002. 6.18

발신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

수신 : 김지희

참조 :

선 결			지 시	
접 수	일 자		결 재 · 공 람	
	시 간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목 : 사회과학대학 성폭력 사건에 관한 건

1. 본문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가 언어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건의 2차 가해자 김지희씨가 대책위원회로 보낸 문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다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대책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공문으로 보내드립니다.

2. 이번 사건은 새터에서 일어난 성폭력에 대한 신고 사항으로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규정에 따라 총여학생회 부총여학생회장, 가해자 소속 단위인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부학생회장,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신고인과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신고인 총 4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본 사회과학대학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을 명백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언어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1 피해자의 진술서와 신고로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준)을 구성하고 가해자에게 이 사건이 접수되었음을 공지하며 가해자와 2차 가해자 2인에게 진술서를 받아 사회과학대학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규정상 대책위원회는 최소 3인에서 최대 6인까지로 구성할 수 있으며 피해자나 신고인은 본인의 동의여부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신고인의 동의하에 신고인까지 총 4인의 대책위원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이 신고되었을 때 새터 자리에서 일어난 성폭력이라고 본 사건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이를 확인할 필요에 따라 1차 가해자와 면담을 몇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1차 가해자는 그 화두를 꺼낸 것이 자신이었다고 물밑 작업이라는 말을 한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꿀꺽'이라는 말을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가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대책위원회는 가해자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꿀꺽'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잘못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새터 직후부터 문서와 말을 통해 수차례 언급을 한 바 있고,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그 사건을 신고하여 피해자가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억을 조작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꿀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그 단어를 둘러싼 당시 상황과 그 상황이 바로 피해자를 힘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꿀꺽'이라는 단어 역시 그러한 맥락 하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당시 정황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기억하는 피해 사실이 있고,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 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입장을 수용하여 가해자에게 '자신은 기억이 없지만 피해자는 기억하고 있는 피해사실에 대해 사과할 것'을 징계하였습니다.

3-2 이와 동일한 입장에서 대책위원회는 2차 가해자 2인에게 2차 가해 사실에 대해서도 사과할 것을 징계하였습니다. 이것을 1차 가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에 서술한 부분에 대해 1차 가해자가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러한 자세부터가 대책위원회의 징계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원회는 진심이 담긴 사과문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가해자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2일의 여유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대책위원회에 어떤 합당한 이유도 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과문 작성 시간을 늦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가해자와 논의가 진행중이며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3-3 대책위원회에서 2차 가해자 김지희씨에게 요구한 것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사과문이 아니었습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공식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징계 사항으로 피해자와 공동체에게 사과하는 사과문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 전달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지희씨가 대책위원회로 보낸 것이 개인적인 사과문이었다면 대책위원회의 요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책위원회 역시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은,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미안함'을 전하는 사과문이 아니었습니다. 2차 가해가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며 성폭력을 재생산하는 사회적인 역압이 된다고 본 대책위원회는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2차 가해에 대한 반성의 사과문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1차 가해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는 이미 말씀 드린대로입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김지희씨의 행동이 피해 사실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2차 가해로 규정하며, 이에 대해 피해자와 공동체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4. 대책위원회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사건 경과 보고문을 공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 경위와는 별개로 당시에 김지희씨의 어떠한 행동이 2차 가해가 된 것이며, 어떤 부분을 사과하는 것인지 공동체 역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정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쓰기보다는 사과를 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할, 자신의 행동 중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차 가해도 마찬가지였지만, 2차 가해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2차 가해를 저지르게 되기도 합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공동체가 공동체 문화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2차 가해에 대해 좀 더 민감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2차 가해자 김지희씨에게 상황이 좀 더 서술되어 있는 사과문을 요구한 것입니다.

6.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다시 질문하는 과정에서 김지희씨가 피해자의 이야기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음을 대책위원회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였고, 그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김지희씨의 의견대로 피해자와 상의를 하고 싶었다고 하기에는 피해자가 느끼기에도, 대책위원회가 판단하기에도,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확인하려는 말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한 차례가 아니라 전화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피해자에게 그 사실에 대해 확인을 했다는 점에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의논을 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문제라 판단합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판단 하에 이에 대해서 피해자와 공동체에게 사과하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7. 본 사건의 2차 가해자는 김지희씨와 우희정씨 2인입니다. 우희정씨는 새터 자리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재구성을 위해 한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고, 필요에 따라 1차 가해자와 함께 한차례 더, 총 2회의 면담을 하였습니다. 김지희씨와 우희정씨에게 동시에 2차 가해에 대한 사과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우희정씨는 사과문을 작성했다는 이야기를 부총여학생회장을 통해 대책위원회에 전달했고 그에 대해 김지희씨가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희정씨의 사과문은 예상 시간을 초과하여 도착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우희정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특정인에게 더 많은 기회나 혜택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당사자들의 정황이나 조건상 일정이 바뀌거나 요구 사항이 변화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특정 가해자가 저야 할 책임을 축소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오해하셨다면 이것으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상황에 따라서는 2차 가해자 2인에 대해 다른 시간과 조건으로 사과문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8. 대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가해자와의 면담을 진행합니다. 위에 서술한 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 면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면담은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지희씨에게 면담을 제안하지 않은 것은, 대책위원인 부총여학생회장과의 면담에서 밝혔듯이 2차 가해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였고 이에 대해 확인할 부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대책위원회가 가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지희씨가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나 대책위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충분히 그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책위원 전원과 만나고 싶다면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만남을 위해 대책위원회가 먼저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장소:총여학생회실)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월요일의 만남을 통해 이번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